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문의 02-944-5000
www.iscu.ac.kr

최고 교수진
최첨단 16,000m²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코프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4호선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입니다.

Seoul Cyber University 2013. vol.21

SCU e야기

e 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Vol. 21

SCU FOCUS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새로운 역사, 한옥 완공

SCU TODAY 제10기 하계 해외탐방 - 우즈베키스탄

SPECIAL THEME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 총장 - 임마누엘 고에

SCU FLY HIGH 행복한 승마체험 나들이

2013 DT BRAND POWER

DT브랜드파워대상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Contents

02 Cyber Gallery

SCU Jump up

- 04 **SCU Focus**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새로운 역사, 한옥 완공
- 08 **SCU Today 1** 장기근속교직원 표창 & 김신영 명예이사장 흉상제막식
- 2 신·편입생 초청 발레공연 & SCU 청소년음악회
- 3 제10기 하계 해외탐방 – 우즈베키스탄
- 4 SCU 모바일웹 2.0 오픈
- 5 SCU만의 스마트한 교육, 학생맞춤학기제
- 6 서울역 청소봉사 & 희망TV 사회공헌프로그램 참여
- 7 서울동부지역 바자회와 체육대회 & 서울북부지역 봉사활동
- 8 노인복지학과 독거노인돕기 나눔행사

Special Theme

- 24 **Theme Interview** 1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 총장 – 임마누엘 고에
- 2 영정사진 재능기부, 이남운 학우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 3 한혈증 26개 기증, 변숙현 학우 (사회복지학과)
- 4 대한민국서도대전 특선 수상, 유정순 학우 (노인복지학과)
- 5 휴먼서비스대학원 원우회 부회장 김수현 원우 (상당심리대학원)
- 6 휴먼서비스대학원 실습 후기 – 태화샘솟는집
- 32 **사제지정**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 & 제자 박효원, 정은영, 이혜영

SCU Fly High

- 34 **행복문화체험** 행복한 승마체험 나들이
- 38 **소원을 말해봐** 아주 특별한 동행 – 김익진 학우 (복지시설경영학과)

SCU Info

- 40 **Essay**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 – 김수지 보건행정학과 석좌교수
- 42 **Hello! 재테크** 재테크? 빚부터 갚아라... 빚테크 5계명
- 44 **꼭 알아야 할 의학정보** 쉬어도 소용없는 '피로', 혹시 병은 아닐까?
- 46 **SCU Cluture**
- 47 **SCU 사랑방**
- 48 **SCU News**
- 50 **교수동정**

발행일 2013년 7월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차명희 교수
편집위원 김영민, 김현아, 박병석, 심선경, 홍선관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325,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이청자 화백 작품

rhythm 157

〈rhythm 157〉은 캔버스에 역동적인 리듬을 표현해 온

이청자 화백의 한국무용 작품 가운데 하나다. 우리의 민

속놀이인 강강술래에서 발견하는 리듬은 경쾌하면서도

때론 아련한 슬픔이 베어난다. 이청자 화백은 인간의 행

위에서 느낄 수 있는 리듬이 자연 본질의 질서 혹은 생명

력과 닿아 있음을 말하고 있다. 리듬에 대한 매혹으로 늘

새로운 작품세계를 열어가는 이청자 화백의 작품을 기

다리는 이유다. 그의 작품들은 현재 우리 대학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전시되어 작품으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한옥 '구리당'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새로운 역사, 한옥 완공!

지난 해 4월 착공해, 1년여의 작업 끝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한옥 '구리당'이 그 베일을 벗었다. 앞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할 '구리당' 완공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설계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한 허묘연 부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 편집부

서사대 캠퍼스, 한옥을 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미아동 캠퍼스 본관 뒤편, 오패산 자락이 자연스러운 운치를 자아내는 이곳에 새로운 한옥 건물 한 채가 들어섰다. 이 낮은 한옥의 정체는 '구리당'. 내·외빈을 맞이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한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가을부터 설계를 시작, 지난 2012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가 1년여의 공사 끝에 올 여름 드디어 완공되었다.

“구리당이라는 이름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설립자이신 故 이봉수 이사장님의 호에서 정하게 되었어요. 선대 이사장님의 고향이 평북 의주의 구리라는 마을이에요. 십 리가 못 되는 작은 마을이라는 의미인데, 본인도 십 리가 채 못 되는 작은 인물이라는 겸손의 의미로 호를 지으셨죠. 우리 학생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고 설립자의 교육이념을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의미로, 이번 한옥에 구리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국제교류가 활발하기에 외국의 많은 귀빈들이 학교를 방문한다. 귀빈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전통 건축인 한옥에서 맞이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허 부총장은 말한다.



“구리당은 교수님들이 워크숍이나 학술세미나를 하는 학문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고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절과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공간으로도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세웅 이사장님께서 건축 전역을 기부하셔서 여러 용도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품은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화의 미학을 품은 구리당

구리당의 기본적인 설계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운현궁 노락당을 모델로 하고 있다. 흥선대원군의 사가였던 노락당은 ‘노락당과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부총장

하늘 사이가 한 자 다섯 치 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건물이다. 구리당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가 건축물인 노락당의 규모와 기본 구조 등을 참고했다.

지상 84.5평, 지하 42평으로 구성된 구리당은 총 126평 규모인데, 이것은 민가로 지어진 한옥으로는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들만큼 큰 규모다. 기둥의 높이 역시 일반 한옥보다 높다. 이러한 규모와 높이는 구리당에 시원시원하고 품위 있는 자태를 더한다. 정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은 널찍하고 시원하게 뻗은 대청. 건물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주방과 식당이, 좌측에는 한실이, 그 앞쪽으로는 양실이 있는 전통적인 ‘ㄷ자’ 구조다. 한옥 건물로는 이색적으로 지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별다른 공간의 분할 없이 설계된 지하 공간은, 전시와 리셉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위해 공을 들인 구리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재다.

“소나무를 위주로 사용했어요. 기둥과 석가래는 우리나라 나무인 육송을 썼고, 보의 경우에는 캐나다산 더글라스 퍼를 사용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목재는 가격도 비쌀 뿐더러 목재 확보가 쉽지 않아서 고생을 했죠. 하지만 고생한 만큼 한옥 전체에서 퍼지는 은은한 나무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소나무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옥 내부에는 따로 칠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구리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동서양의 조화다.

“외부에서 보면 전통적인 한옥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내부는 매우 현대적이죠. 높고 시원시원한 홀(대청)이나 입실 구조의 주방도 그렇고, 가구와 조명, 그림 등의 소품도 일반적인 한옥에서 보기 힘든 것들을 적절히 배치해 세련된 분위기를



구리당 문설주에 걸린 주련

주련의 옛 시조 3편은 각각 다른 시이면서도 하나의 시처럼 어우러지며 자연과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다.



자아내고 있어요.”

이러한 동서양의 조화는 건축물 자체의 차별점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학문교류의 장이라는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설계자가 전통적인 한옥의 재현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천정도 낮고 지붕이 아래로 내려다보이게 건설되었다가 재설계와 시공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조경 역시 구리당 건물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로 운치를 더한다.

“한옥에서 바라보는 정원이 참 좋아요. 구리당 옆으로 오패산 자락이 뻗어 나와서 자연스럽게 운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세심한 조경을 더해져서 더 멋진 풍경이 완성 되었죠. 대청과 식당, 양실 창문으로 사계절 다양한 색감의 자연과 다보탑, 석가탑 조형물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풍경이 매우 멋스러워요.”

구리당, 서사대 역사의 또 다른 시작

허 부총장의 설명대로 동양과 서양의 조합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한 구리당은, 이색적이지만 결코 이질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구리당에서 돋보이는 것은 조화로움이다. 주변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구리당은 서울사이버대학 캠퍼스 내의 다른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주변의 자연 환경을 해치지거나 혼자 튀지 않게 지어진 건축물이다. 그것은 곧 구리당이라는 이름에 담긴 겸손의 미학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연과의 일치, 겸손의 미학은 구리당 문설주에 걸린 주련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제 갓 완공을 했는데 이미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후문 쪽 큰 길가에서도 구리당 건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구경오시기도 해요. 우리 학교 캠퍼스가 있는 동네가 서울 도심에서는 떨어져 있다 보니, 주변에서 이런 상징적인 건축물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네에 구리당 같은 한옥 건축물이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의 의미가 되지 않나 싶어요.”

허 부총장의 말처럼 구리당은 이미 서울사이버대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간은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품는다. 그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품은 공간은 시간이 지나며 역사가 된다. 앞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무수한 이야기와 사람들을 품으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역사가 될 것이다. ▲

10년 장기근속 교직원 공로패 수여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학교법인 신일학교(신일중·고등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개교 47주년을 맞이하여 개교기념식 및 교직원 표창이 있었다.

01. 신일고등학교 이경옥 교장선생님의 기념사
02. 장인환 이사장님으로부터 공로패 받는 사회복지학과 이문숙 교수



김신영 명예이사장 홍상제막식 열어

지난 5월 14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신영 명예이사장님의 공덕과 은혜를 기리고자 홍상을 제작하여 교내에 설치해 그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는 동문을 비롯한 교수 등 50여 명이 모여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서울사이버대 사진영상물이 상영되고 제막식 축하의 장이 마련됐다. ▲

01. 홍상 제막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교직원
02. 장인환 이사장님으로부터 공로패 받는 조각가 정현 교수



“신·편입생 환영합니다!” 발레공연 ‘오네긴’에 200명 초청

‘백조의 호수’, ‘아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오네긴’까지. 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학생들을 무료로 초청한 유명 공연들의 목록이다. 지난 7월 13일에는 신·편입생 200명이 오네긴에 초청됐다. 오네긴은 푸슈킨 원작소설의 문학과 차이코프스키의 서정적 음악이 결합해 탄생한 발레공연으로, 2009년 유니버설발레단의 초연 이후 앙코르 요청이 쇄도해 다시 무대에 올려졌다.

오네긴에 초청된 신·편입생들은 세계 정상급 발레스타 서희와 로베르토 볼레가 출연한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기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곧 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맞이할 신·편입생들의 기분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진제공 유니버설 발레단

‘청소년음악회’로 클래식과 ‘통(通)’하다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정치용 & 어메이징 오케스트라’가 지난 4월 2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5월 18일, 6월 15일 공연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협찬한 이번 공연은 12월 7일까지 총 6번의 음악여행으로 펼쳐진다. 또 매회 300명, 총 1,800명의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특히 자녀를 둔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 자녀들과 공연을 관

람한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치용이 들려주는 해설과 공연에 푹 빠져버렸다고. 또 이번 공연을 계기로 클래식에 관심을 갖고 클래식 공연장을 찾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클래식은 고리타분하다? ‘정치용 & 어메이징 오케스트라’로 편견은 깨졌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클래식을 즐기는 멋진 습관을 갖게 될 듯하다. ▲

사진제공 예술의전당

Interview 이완형 입학처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년 두 차례 신·편입생들을 문화·예술 공연에 초청합니다. 재학생들에게도 음악회, 발레공연, 오페라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요. 영화시사회에는 매달 약 120명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 중심의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편입생들을 ‘오네긴’에 초청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교육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런 교육서비스가 평소 문화생활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Interview 이의신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곳입니다. 학교에선 멋진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학생들은 다양한 공연에 초대됩니다. 이 역시 또 다른 교육입니다. 작년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을 빌려 전교생이 ‘백조의 호수’를 관람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학교 내에 문화·예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좋은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치용 & 어메이징 오케스트라’는 우리 학교가 기획하는 다른 문화행사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곧 열리는 예술의전당 야외공연 ‘가곡의 밤’에도 학생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가곡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10기 하계 해외탐방

우즈베키스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년 두 차례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10기 하계 해외탐방지는 실크로드의 영광을 간직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아직 우리에게 낯선 나라 우즈벡에서 펼쳐진 3박 4일 간의 특별한 여정을 탐방단을 인솔한 사회복지학과 박형원 교수를 만나 들어 보았다. 글 | 편집부

‘미지의 나라’ 우즈베키스탄으로!

지난 6월 21일, 재학생 22명과 박형원 교수는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구(舊) 소련의 공화국 중 하나였던 나라’, ‘미녀가 많은 나라’, ‘고려인이 살고 있는 나라.’ 탐방단이 우즈벡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이 정도 뿐이었다. 그래서일까. 미지의 나라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설레었지만, 한편으론 걱정과 두려움도 컸다고 한다. 긴 비행 후 타슈

켄트에 도착한 탐방단을 맞아준 것은 40도를 웃도는 날씨, 우리나라 70년대를 연상시키는 거리, 그리고 웬지 긴장되었던 마음을 풀어준 우즈벡 사람들의 따뜻하고 순박한 미소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우즈벡 탐방은 수도 타슈켄트와 제2의 도시 사마르칸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탐방단은 사마르칸트의 상징인 ‘구르에미



제10기 하계 해외탐방 단원들



01.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형원 교수
02. 중앙아시아 최대의 이슬람 사원인 ‘비비하눔 모스크’
03. 고려인의 영웅 김병화 박물관



르묘(墓), 사마르칸트 제일의 성지 ‘샤히진다’, 중앙아시아 최대의 이슬람 사원인 ‘비비하눔 모스크’ 등을 방문했다.

“우리는 비비하눔 모스크, 압둘카심 사원 등 여러 이슬람사원을 둘러 보았습니다. 우즈벡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사실이 조금 의외였어요. 그러나 우즈벡의 이슬람교는 중동의 일부 과격한 이슬람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 않고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세속화된 이슬람이라고 할까요?” 박 교수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탐방단은 이밖에도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개관한 ‘아무르티무르 박물관’, 정확한 관측으로 유명한 ‘울루그벡 천문대’, ‘우즈벡 국회 의사당’ 등을 둘러보며 우즈벡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교감

3박 4일 동안 우즈벡 사람들은 언제나 “꼬레, 꼬레!” 하며 먼저 다가왔다. 함께 얘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한 우즈벡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던 탐방단은 ‘우즈벡은 사람들이 좋아서 다시 오고 싶은 나라’라고 입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이번 탐방을 계기로 우즈벡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박 교수는 “우즈벡은 한국에 무척 호의적이에요. 그곳에선 한국차가 제일 고급차로 손꼽히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죠.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들이 한국에 관심이 큰 만큼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 차원에서 단기 어학코스 등을 기획해 봉사한다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이주 고려인의 역사를 만나다

마지막 날 탐방단은 고려인의 영웅 ‘김병화 박물관’을 찾았다. 그는 과거 우즈벡 집단농장의 지도자로서 근면성을 인정받아 우즈벡 공화국으로부터 영웅 호칭을 받은 인물이다. 탐방단은 김병화 박물관을 둘러보며 TV로만 보았던 고려인의 역사를 생생하게 확인했다. 과거 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야 했던 고려인들,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탐방단은 깊은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새로운 세계와의 조우, 그리고 성장

6월 25일, 탐방단이 3박 4일의 여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 교수는 “더위와 음식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소중한 값진 경험들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각과 경험의 지평이 넓어진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우즈벡의 문화, 역사를 체험하고 사람들과 교감했던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이제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우즈벡을 이웃나라처럼 친숙하게 여기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학우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해외탐방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SCU 모바일웹 2.0 오픈

모바일웹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지난 5월 31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모바일웹 2.0(m.iscu.ac.kr)을 리뉴얼 오픈하였다. 이번 모바일웹 2.0은 기존 1.0에 비해, 마우스로 조작하는 PC와는 다르게 터치스크린을 손가락으로 조작해야 하는 모바일이라는 제한적 공간의 UX(User Experience, 사용자경험) 개선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였다. m.iscu.ac.kr 글 | 편집부



대학소개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사이버대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차별화된 콘텐츠, 최첨단 멀티미디어 강의를 자랑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사이버대학(2007년)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평가기관으로부터 명실공히 최고의 사이버대학교로 인정받았습니다.

교육이념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교육목적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양성
21세기 창의적 전문가 사회의 구현

교육목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인재양성
믿음과 봉사를 실천하는 자주적 인재양성



스마트기기로 모바일 웹을 즐기는 서울사이버대 학생들

콘텐츠 최적화를 통한 UX 개선

메인에 노출되는 콘텐츠를 과감히 축소하였으며 그리드 형태로 분할된, '주요 콘텐츠 바로가기' 아이콘의 큼직한 터치영역과 메타포를 활용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통해 사용성 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상단우측의 전체 메뉴 버튼은 사이트맵과 바로가기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주요 콘텐츠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현하였으며, 리스트형 2Depth 메뉴를 적용하여 순차적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one & Manner를 통한 안정적 디자인가이드 구현

제한된 컬러시스템을 도입하여 일관된 디자인스타일가이드를 전체 페이지에 적용하였다. 주조색으로 사용된 블루컬러는 시각적 일관성과 콘텐츠의 주목도를 향상시켰다.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과도한 이미지와 그래픽폰트는 배제하여 화면 로딩속도를 최적화하였다.

디바이스별 접근성 개선

W3C기준 웹표준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하여 다양한 플랫폼(Android와 IOS계열 등)에서 해당정보를 정보소외계층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특히 다양한 모바일디바이스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입학상담/입학지원/입학자료신청/학과소개 등 타겟팅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직까지 모바일에서 웹을 이용하다 보면 다소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불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



SCU 스마트교육 시행 성과

SCU만의 스마트한 교육, ‘학생맞춤학기제’ Start!

여름 계절학기 시즌이 돌아왔다. 그러나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계절학기는 조금 특별하다. 바로 사이버대학 최초로 도입된 ‘맞춤학기제’가 이번 계절학기부터 ‘집중학기’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였다. 재학생은 물론 신·편입생의 관심과 기대 속에 수강신청을 마감한 ‘집중학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올해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실시하는 ‘맞춤학기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여건에 따라 학업 계획을 세우고 졸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서비스다. 따라서 기존의 1년 2학기제가 1년 4학기제(1학기→하계 집중학기→2학기→동계 집중학기)로 확대 운영된다. 조기 학위취득을 원하는 신입생의 경우 일반학과와 집중학기를 모두 수강하면 최대 1년까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목표와 학업 계획에 따라 스마트하게 공부할 수 있

는 맞춤학기제는 학생 중심으로 최적화된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특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집중학기’로 학생 스스로 졸업시기 선택

1년 4학기제는 기존의 1,2학과와 하계 및 동계방학에 개설하는 각 6주간의 집중학기를 더해 연간 총 42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집중학과와 일반 계절학기의 차이점은 우선 개설 교과목 수에 있다. 기존 계절학기 교과목 수가 학과마다 1~2개, 1년

에 30과목 내외였다면, 집중학기는 이를 2배 이상 늘려 학과마다 많게는 7~8개의 전공과목이 개설된다. 교양과목의 경우도 기존 보다 2배 가량 늘리고 교양필수 과목도 개설한다. 그만큼 학점을 많이 취득할 수 있고 조기졸업도 용이하게 된다. 집중학기는 6주 동안 진행되며 중간고사는 없지만 기말고사가 전 과목 동시평가로 진행된다.

첫 ‘집중학기’ 등록 마감… 신·편입생 큰 폭으로 증가해

이번 하계 집중학기 수강생의 분포를 통해 맞춤학기제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존 계절학기 수강생이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집중학기에는 새롭게 입학한 신·편입생 수강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를 통해 입학 초기부터 자신의 학업계획을 미리 세우고 목표를 정해 조기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집중학기를 도입하면서 모든 수강생에게 장학금 20% 지급한 것도 수강생 분포와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기존 계절학기가 장학혜택이 없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다면, 집중학기는 성적 3.0 이상이면 다음 집중학기에도 ‘집중학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 지급으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성적관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질 높은 학사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맞춤학기제 도입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은 1년 4학기 동안 중단 없는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일반학기의 수업량을 집중학기로 분산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졸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기존 계절학과 새로 도입된 집중학기 비교

	기존 계절학기	집중학기	비고
개설 과목 수	30개 과목 내외 (전공별 1~2과목)	65개 과목	전공별 과목 수 증가 교양과목 증가
수강인원	1,400여명	2,400여명	전체 수강인원 증가
장학금 지급 여부	없음	집중학기장학 지급	경제적부담 완화
수업기간	5주	6주	강의 내적 강화
수강생의 구성	4학년중심 (70% 이상)	1,3학년 신입생 (60% 이상)	대상의 변화

되었다. 개별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한 학생맞춤학기제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Interview 이은주 부총장

모바일로 편리하게 강의를 듣는 ‘스마트러닝’,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강의 ‘현장중심의 팀티칭’은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스마트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다른 스마트 교육과정인 ‘맞춤학기제’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이번 하계 집중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에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집중학기 수강생이 기존 계절학기 대비 약 80%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일반 대학교와 달리 학생들의 연령대와

배경이 다양해서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상담센터 운영과 리서치 등으로 학생들의 욕구와 어려움을 파악해 전략적 제도 개선과 시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본인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운영하는 맞춤학기제 역시 그런 노력의 산물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여 학습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SCU, WAVE 사회봉사단

〈서울역 청소봉사〉 하나된 마음으로 청소 싹싹!

우리 주변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봉사단은 우리 이웃의 그늘진 곳을 보다 희망찬 곳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된 마음으로 서울역을 청소한 단원들은 봉사활동 하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서울역 청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청소봉사활동은 노숙인들의 자존감 회복과 주변 환경을 개성하고



다양한 노숙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전 반적인 생활개선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 동문, 교수 등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역 무료급식소 채움터에 모여 주변 이웃과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우리 주변의 그늘진 곳을 찾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바른 가치관을 창출하고 정립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WAVE 사회봉사단은 이번 서울역청소봉사활동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생과 교수 등은 청소도구를 들고 서울역 주변을 정성껏 청소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사단법인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했으며,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목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 주변과 사회를 돌보는 서울사이버대학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SCU, WAVE 사회봉사단

〈희망TV SBS〉 사회공헌프로그램 참여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눔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희망TV 사회공헌프로그램에 참여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봉사단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의 문제를 같이 고민할 것이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성균관대학교 금잔디 광장에서 1박2일로 진행된 〈희망TV SBS〉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희망TV SBS〉는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눔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1997년 〈기아체험 24시간〉으로 시작해, 2011년부터는 〈희망TV SBS〉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SBS에서 방영되며 15년 동안 총 1,158억원을 모금했다. 모금액은 매년 소외계층 어린이와 아프리카 및

제3세계 빈곤 국가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WAVE 사회봉사단은 행사 첫째날인 지난 5월 10일 〈희망TV SBS〉 생방송 시간 동안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 부스에서 '수퍼컵(SOUP A CUP)' 이벤트의 일환으로 컵을 이용한 미니 게임 등의 진행을 도왔다. 이 행사에서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하루 한 끼 음식을 먹기 위해 책이 아닌 컵을 들고 학교로 향하는 실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한 컵의 죽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해 의미를 공유하고 나눔을 호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번 행사에는 굿피플 외에도 굿네이버스, 밀알복지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단체가 참가했으며 가수 김태우, 인피니트, 오렌지카라멜 등의 연예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풍성히 했다. ▲



SCU 서울동부지역, 바자회와 체육대회

“최강 동부”의 어느 멋진 소풍 날

6월 6일 현충일은 서울동부지역 학우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빨간 날’이었다. 바자회 겸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학우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바자회 용품과 도시락, 아기자기한 게임도 물론 좋았지만, 이 날 가장 환히 빛났던 건 끊이지 않고 이어진 정겨운 담소와 모두의 환한 표정이었다. 글 | 편집부



바자회와 체육대회를 연 SCU 서울동부지역 학생들

키 큰 소나무 숲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운 명당, 서울동부지역 학우들이 미리 점찍어 놓은 바자회 장소는 올림픽공원의 소마미술관 너머의 작은 숲 속 터였다. 청바지, 솜씨 좋은 학우가 직접 제조한 모기퇴치액, 화장품과 보드게임, 떡과 양말까지 알뜰살뜰한 생활용품들이 잔뜩 자판 위에 깔렸다. 오전 열시 반이 지나자 학우들이 하나 둘 도착해 장사에도 흥이 올랐다. “어깨동무라는 봉사 동아리가 있어요. 오늘 바자회 수익금은 ‘어깨동무’가 2학기 때 봉사 기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봉사활동 계획에 맞춰 소중히 사용할 거예요.”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오희련 학우(노인복지학과 4학년)의 말이다. 봉사에 남다른 뜻을 품고 있는 오 회장은 가족적인 분위기만큼은 ‘동부’가 최고라고 자부한다. 비록 오프라인에서 함께 수강을 하지는 않지만 학우들은 친목 모임으로 3~4월에 한 번씩은 꼭 얼굴을 맞대는 시간을 갖는다. 적극적인 오 회장의 선출로 이제는 다양한 활동들이 더욱 활발해질 기세다. 느긋한 점심 식사 후의 행사는 고마운 학우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여기 저기서 인사말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고, 뒤늦게 도착한 이들은 학우들의 환대 속에 뒤늦은 점심식

사를 마쳤다. 이제는 본격적인 체육대회로 몸을 풀 차례다. ‘최/강/동/부’ 네 팀으로 나누어 OX퀴즈로 슬슬 몸을 풀고 단체줄넘기가 이어졌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임으로 준비했다는 김성진 국장의 예감은 적중했다. “꼭 옛 친구들을 만나러 온 자리 같아 정답고, 마음이 푸근합니다.” 학우들과 어우러져 게임에 열중한 윤경목(컴퓨터정보통신학과) 교수의 말이다. 무더위가 전국을 점령하기 전, 어느 초여름날의 즐거웠던 오후를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SCU 서울북부지역, 봉사활동

아름다운 사람들, 소외된 이웃에게 손 내밀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역별, 학과별 봉사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북부지역학생회(이하 북부지역회)’의 봉사동아리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이하 아사모)’은 10년째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에 쓰일 따뜻한 기금이 아사모에 전달되는 자리에 함께 따라가 보았다. 글 | 편집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SCU 서울북부지역 학생들

지난 7월 1일, 서울북부지역회가 일일호프를 열어 마련한 기금을 아사모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서울북부지역회의 봉사동아리 아사모가 매달 수락양로원에서 진행하는 발마사지 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를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역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지역 모임 중 하나로 도봉, 노원 등 6개구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MT, 문화행사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것은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날 기금을 전달받은 아사모가 대표적인

예이다. 올해로 10년의 역사를 갖는 아사모는 현재 60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재학생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졸업생들이 아사모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자랑이라고 한다. 아사모는 발마사지 외에도 봄에는 수락산봄꽃축제, 가을엔 경로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노원구와 함께 양로원에 치킨을 전달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한다. “경로잔치만 해도 직접 전을 부치고 다과를 준비하는 등 정성이 대단합니다. 정초

에는 떡국봉사도 하고 있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3년째 기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항상 좋은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울북부지역회 동아리로 출발해 점점 활동을 확대해 나가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아사모,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봉사활동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

독거노인돕기 나눔행사와 마무리체험

노인복지학과,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다

6월 22일, 노인복지학과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독거노인돕기 나눔행사와 졸업한 동문의 특강이 함께 있었다. 주말임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쌓고 좋은 취지로 마련된 행사 자리를 빛냈다. 글 | 편집부

올 해로 학과 개설 10주년을 맞은 노인복지학과에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학과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요양원 봉사를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우들도 많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 대해 김화숙 학우는 이렇게 말했다.

“작년에 처음 기금을 마련해 독거노인들께 전달했는데 정말 좋

아하졌어요. 한 분은 학과장님께 감사편지까지 보내셔서 모두 마음이 참 뿌듯했죠. 그래서 이 행사를 꾸준히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나눔행사에 앞서 졸업한 동문들의 특별한 강연도 준비됐다. 열기가 뜨겁고 가슴 뭉클했던 특강, 선후배의 정이 오고 간 나눔행사 현장을 함께 따라가 보았다.



아름다운 마무리 체험을 하고있는 학우들



노인복지학과 학우들이 진로탐색강연을 듣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동문에게 물어봐

노인복지학과 학우들은 졸업 후 대부분 관련 전문영역에 종사한다. 그래서 학과에서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매년 2차례 졸업한 동문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올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김용진 동문을 강연자로 모시고 노후설계와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동문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조언했다.

‘나는 잘 살아 왔는가?’ 아름다운 마무리 체험

김용진 동문의 강연 뒤엔 현재 호스피스로 활동 중인 이철승 동문이 지도한 ‘아름다운 마무리 체험’이 이어졌다.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삶의 이별. 학우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글을 작성하고,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 보는 입관체험을 했다. 입관체험을 한 어느 학우는 “관에 누워 있자니 평소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게 가장 마음에 걸린다.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할 것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살면서 한 번도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기회를 갖게 한 이 체험은 학우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선후배가 함께 ‘독거노인돕기 기금’ 마련

특강이 끝난 뒤 학우들은 일일호프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독거노인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이 행사에는 반가운 동문들이 많이 참석했다. 사이버대학이라 자주 얼굴을 볼 수 없다 보니 학우들에겐 이런 만남의 자리가 무척 소중하다.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웃음을 터뜨렸다. 특히 올해는 평균 연령이 40대였던 학과에 20~30대 신입생이 여러 명 입학해 학과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한다.

신입생들에게도 이런 학과 행사가 특별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학과 학우들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기쁘고 따뜻해졌을 것이다. 이날 모인 소중한 기금은 빠른 시일 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해외석학, 임마누엘 고에를 만나다

세계와 ‘사랑’을 나누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 사무총장 **임마누엘 고에**

전 세계에서 의료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북한을 비롯한 한국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사무소 사무총장 임마누엘 고에를 권구순 교수(교양학부)가 만났다. 글 | 편집부

국경없는의사회(MEDICINS SANS FRONTIERES, MSF)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국경없는의사회는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 그리고 전쟁과 같은 비상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돕는 국제의료 인도주의 비영리 독립단체로 1971년 프랑스의 의사와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5개국에서 3만 4천여 명의 직원들이 구호와 의료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 집행예산은 2011년도 기준 약 8억 8,500만 유로(약 1,365억원)입니다. 이렇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인도적 지원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6년 서울평화상, 1999년 노벨평화상, 그리고 2012년 기관으로는 최초로 풀브라이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언제 설립되었나요?

저희 단체가 국제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도록 유관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신청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2012년 2월에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경없는의사회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을 기반으로 시작되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동의 주체를 비롯해 참여의 범위와 영역을 개방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내·외부적으로 제기되면서 주로 비유럽권의 신흥 공여국을 중심으로 지부가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일본사무소가 이미 20년 전에 설립되었고, 브라질, 인도, 남아공, 그리고 한국에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에 참여할 우수인력을 채용(recruiting)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구호활동과 연관된 각종 물류(logistics)전문가, 그리고 재무·행정인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적 지원활동을 알리는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65개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생생한 소식과 더불어 시리아, 남수단과 같이 분쟁지역 등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도적 이슈들을 한국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후원모금입니다. 놀라시겠지만,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재원의 약 90%가 일반대중으로부터 모금이 됩니다. 너무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향후 3년을 전후하여 한국에서의 모금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이외에도 선진 공여국 정부나 유엔, 유럽연합과 같은 공적원조기구들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국경없는의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가 있어 조심스럽게 대규모 재단을 대비한 물자와 장비의 비축이나 이미 국경없는



임마누엘 고에와 서울사이버대학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

의사회가 수행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젝트에 한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사무총장님은 해외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한국정부의 역량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국은 상당한 잠재가능성(potential)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많고 공적개발원조(ODA)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상원조담당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저희 같은 전문적 국제의료구호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이버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서울사이버대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 중에 저희 단체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 필요한 요구조건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영어나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고도의 전문성입니다. 의사, 간호사, 물류전문가, 재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신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한 강한 정신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SCU 4人, ‘사랑’과 ‘재능’을 나누다.



영정사진 재능 기부 가진 **재능**을 나눌 뿐!

졸업생

이남운 학우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인물이라는 피사체를 사랑하는 사진작가가 있다. 인간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는 이남운씨. 그가 바로 주인공이다. 작년부터는 영정사진을 찍는 재능 기부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학생 때부터 사진 봉사 활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카메라 들고 놀러간다고 생각을 했을 뿐,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더 어색하고 쑥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정사진 재능 기부는 그냥 좋아하는 일의 연장선일 뿐이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의 재능 기부 계획을 듣고 선뜻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영정’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법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영정 사진이라는 생각보다 프로필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명함으로 크기를 맞추면 증명사진이 되고, 크게 뽑아서 액자에 넣으면 영

정 사진이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어르신들의 얼굴에서는 다양한 삶이 느껴져 나름 보람도 있고 사진 공부도 됩니다.” 사실 베테랑다운 솜씨를 선보이는 이남운씨도 사진에 갈증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만남은 그간의 답답함을 한방에 날릴 수 있었던 인연이었다. 다행히 여기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전문성 강화는 물론 사진에 대한 이해도도 더 높아졌다. 아무리 재능 기부라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못할 영정 사진 찍는 일에 서슴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소하게 사진을 찍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일상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랍니다. 좀 더 큰 목



표라면 사진관이 아니라 도시락을 준비해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가족애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진요.”

“헌혈은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기부잖아요”

재학생

변숙현 학우 (사회복지학과)

얼마 전 학교에 한 학우가 헌혈증을 보내왔다. 무려 스물 여섯 장. 그 주인공은 바로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변숙현 학우. 알고 보니 그녀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은장과 금장까지 받은 헌혈천사였다.



“헌혈은 어려운 게 아닌 거잖아요. 몸만 건강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변 학우는 헌혈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니,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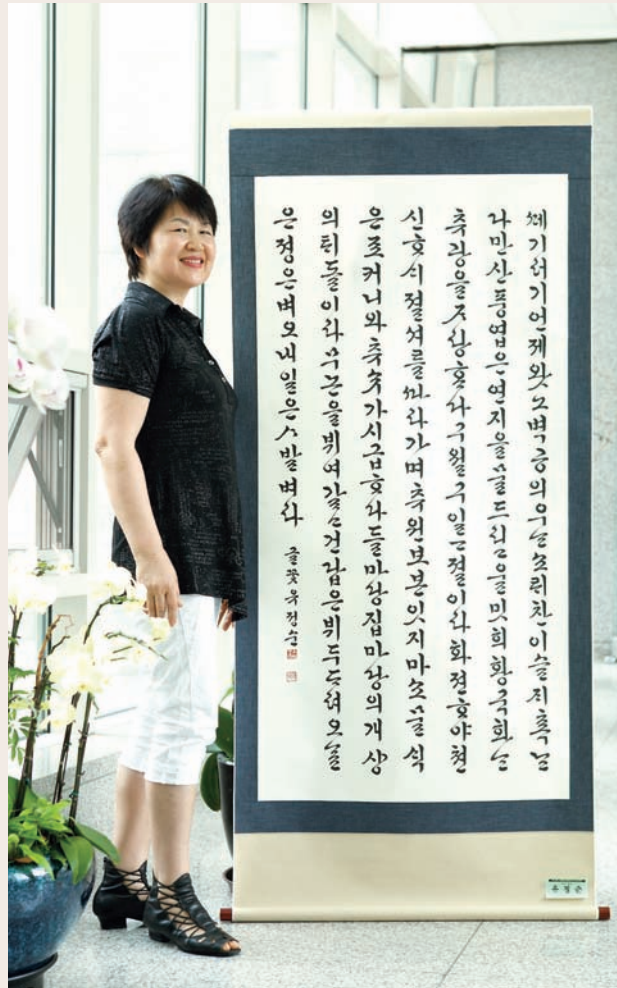
그녀가 처음 헌혈을 시작한 건 여고 시절, 만 16

세 이상이면 헌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대한적십자사로 달려갔다. 전혈헌혈(혈액의 모든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을 한번에 채혈하는 헌혈)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성분헌혈인 혈장헌혈을 하고 있다. 전혈헌혈은 몸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까닭에 두 달에 한 번 밖에 채혈할 수 없지만, 혈장헌혈은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기 때문. 그렇게 해 온 헌혈 횟수는 무려 68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30회 때 은장을, 50회 때는 금장을 수여받았다. 학교 측으로부터 헌혈증을 기증받는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그간 모아두었던 헌혈증도 모두 기증했다. 헌혈 후에 받는 상품권이 영화관람권 역시 한자들에게 선물하라며 모두 기부한다.

사실 변 학우는 헌혈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

니라 모든 사회봉사에 열심이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시간을 내 노인들을 위한 목욕봉사에 나간다. 아직 시집도 안 간 여성이 하기에는 벅찬 일. 그러기에 주변에선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느냐고 묻는단다.

“저는 제 꿈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마흔이 넘으면 복지관을 직접 차려 운영해 보고 싶어요. 남을 돕는 게 바로 제 삶의 기쁨이자 제가 나아가고 싶은 길이니까요.” 최근에는 사후 장기기증 신청도 했을 뿐 아니라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도 마쳤다. 생명이 위태로운 이웃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곧 자기 삶의 이유라는 변 학우. 학교 졸업 후 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더 희망에 찬 모습이 당차고 멋져 보였다. ▲



힘찬 붓놀림, ‘글꽃’이 활짝 피어나다

재학생

유정순 학우 (노인복지학과)

‘글씨가 꽃처럼 피어나라’는 의미로 지어진 ‘글꽃’. 바로 노인복지학과 유정순 학우의 호(號)이다. 23년 전 처음 서예를 시작한 유학우는 대한민국서도대전 특선 등 다수의 대회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경인미술대전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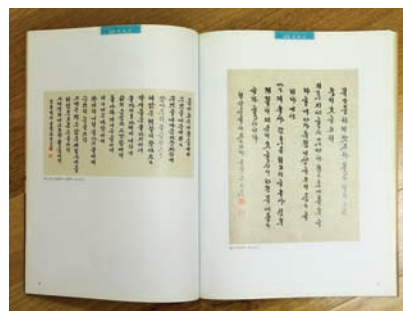
유정순 학우가 서예에 일가견이 있다는 것이 학과에 알려진 것은 최근이다. 이를 쑥스러워하는 유 학우지만 서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데는 거침이 없다.

“서예를 통해 헛헛한 마음을 채우고 내면의 평화와 풍족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전 종교가 없지만 서예를 통해 종교적인 체험을 해요.”

95년부터 매년 4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하는 등 부지런히 활동해 온 유 학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서도대전 특선을 받았다. 학과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소식을 듣고는 기쁜 마음에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 했다고, 서예가의 길을 걷고 있는 유 학우가 노인복지학과에서 공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노인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자격증을 땀는데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했죠. 수업을 듣다 보니 궁금증이 풀리면서 이제야 뭔가 좀 알 것 같더군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요즘 유 학우는 7월 19일부터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전시회 준비에 열심이다. 사회인, 엄마, 학생, 서예가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 학우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제 인생의 꽃은 60세부터 핀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학과 공부도, 서예도 더욱 정진해서 제 능력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대학원생

김수현 원우 (상담심리대학원)

‘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김수현 원우가 입학 전 자기소개서에 쓴 말이다. 그런데 며칠 전 유학 중인 작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김 원우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뿌듯했다고 한다.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고 싶어 시작한 공부였는데 이제 공부하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부하는 것이 참 즐겁다

는 김수현 원우는 현재 상담심리대학원 석사과정과 갈등조정전문가 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김 학우가 갈등조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런데 심리학이 기본 바탕이 되는 갈등조정 분야가 재미있고 적성에도 잘 맞았다고,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이수 후 김 학우는 기업체, 법원 등에서 갈등조정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현재 원우회 부회장과 총무직도 맡고 있는 김 원우는 학과 자랑이 대단하다.
“우리 학교가 사이버대학이라 주로 교안으

로 공부하다 보니 책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좋은 책을 골라주세요. 그 책을 가지고 매달 상담심리대학원 스터디 모임인 SCU정신병리연구회에서 같이 공부하고 사례발표도 하죠. 폭 넓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김 원우는 평생 공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노력과 배움, 이것 없이는 인생을 밝힐 수 없다.’라는 장자의 말씀처럼, 배움을 향한 김 학우의 열정이 자신의 인생과 우리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휴먼서비스대학원 실습 후기 - 태화샘솟는집

“장애가 있건 없건, 꿈 앞에 평등한 세상 만들기의 중요함 깨달았지요”

꿈 꾸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기에 비교적 늦은 나이지만 다시 서울사이버대학에서 만학의 불씨를 키울 수 있었다. 휴먼서비스 대학원 학우들 이야기이다. 글 | 편집부



01. 휴먼서비스대학원 원우들
02. 문병을 원우가 태화샘솟는집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1950년 생으로, 원우들 중 가장 고령자인 문병을 원우를 비롯해, 정홍배, 류득형, 임부희, 이희영, 김현주, 박순옥, 고삼석 이렇게 8명 회원의 평균연령은 50대. 이들은 사회복지사로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면학 중이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120시간의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여기저기 실습을 할만한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대부분의 곳에서 학생들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때 정상원 교수의 추천으로 태화샘솟는집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선 이들의 실습활동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실습 나오신 분들과 비슷한 나이의 회원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회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같이 대화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화샘솟는집의 김명중 팀장은 이런 장점을 생각했고, 이들의 실습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실제로 실습 효과도 컸다. 지각하는 사람 한 명 없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실습 과정을 이수하는 원우들로부터 회원들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원우들 역시 이곳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 복지사로 꿈 전환

태화샘솟는집은 1986년 감리회태화복지재단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자 클럽하우스의 국제훈련기관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터이다. 이곳에서 환자가 아닌 회원의 자격으로 이웃으로부터 존중받으며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함께 일하고, 일을 통해 관계를 맺고, 교육과

학업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클럽하우스란 1944년 미국의 뉴욕에서 1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형성한 자조모임인 WANA(we are not alone)가 그 전신이며 지역사회 재활모델의 하나로 약 30여 개국에 300여 개의 클럽하우스가 있다. 원우들은 태화샘솟는집의 프로그램 모두가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한다.

“클럽하우스의 36개 조항대로 모든 회원과 직원의 하루 일과가 정해지는데, 그 중 최고는 바로 평등가치였어요. '직원만 이용하거나 회원만 이용하는 장소는 없다, 모든 직원과 회원은 클럽하우스의 모든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란 조항대로 모든 것을 직원과 회원이 같이 공유하고 상의하거든요”

졸업 후 노인복지사를 꿈꾸었던 문병을 원우는 이곳에서 실습을 마친 후, 새로운 꿈을 갖고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정신장애인과 함께 소통하는 복지사가 될 겁니다. 회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 장점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정신적인 병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채 폐쇄적인 삶을 살게 방치하는 건 건강한 복지사회가 아니지요. 그들을 도우면서 제 꿈도 이루고, 그들의 꿈도 지지해주고 싶네요”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은 평생을 살면서 여섯 명 중 한 명이 걸릴 수 있는 흔한 병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가 쉽게 만나고 지내왔던 가족 혹은 이웃 중의 한 명인 것이다. 이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취미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며 취업을 통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할 수 있는 것 역시 중요한 복지라는 것. 이것이 이번 실습을 통해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원우들이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었다. ▲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 & 박효원, 정은영, 이혜영 학우

세상에서 가장 화기애애한 스승과 제자를 만나다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의 대화에서는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와 제자 삼인방 박효원(1회 졸업생, 2011년 졸업), 정은영(2회 졸업생, 2012년 졸업), 이혜영(2회 졸업생, 2012년 졸업) 학우. 세 제자에게 김미주 교수는 좋은 교수님을 넘어 인생의 롤모델이다. 그런 제자들에게 스승은 자신을 뛰어넘는 청춘어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한다. 글 | 편집부



왼쪽부터 이혜영, 김미주(교수), 박효원, 정은영



박효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교수님.

김미주 교수 효원 씨는 우리 학과 석좌교수이신 박노레 교수님 연구원으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죠? 혜영 씨는 이번에 연세대에 원에 입학했고, 은영 씨는 최근 둘째를 출산했잖아요. 다들 바쁜 거 아는데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따르는 종종 근황도 주고받는데 다 같이 모인 건 졸업 후 처음이네요.

정은영 이렇게 모이니 학교 때 생각이 나네요. '교수님' 하면 나이 많고 근엄한 이미지가 강한데 김미주 교수님은 워낙 동안이신 데다가 생각이 열려있어서서 늘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미주 교수 내가 그랬나?(웃음) 여러 분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줘서 나아말로 늘 고마웠어요. 보건행정학과가 2009년에 신설된 신생 학과잖아요. 뭐든 첫 출발이 중요한데 당시에 톡톡하고 열정있는 학생들이 많이와서 길을 잘 터줬죠. 졸업을 한 후에도 학교와 후배들에게 애정을 가져주는 것도 고맙고요. 효원 씨가 후배 한 명을 중구보건소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혜영 씨의 경우는 한양대 지역사회보건연구소에 들어간 후 일을 워낙 잘 해줘서 우리 학과 학생이 2명이나 더 연구원으로 갈 수 있었죠. 서사대 보건행정학과에 대한 신뢰를 쌓아준 덕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은영 씨가 동문 모임에서 우리 학과의 청사진을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실 매너리즘에 좀 빠져있었는데, 은영 씨 덕에 오히려 제가 자극을 받았어요. 졸업생들도 이렇게 학과에 애정을 가지는데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정은영 교수님이 그 애정을 심어주신 분이시죠.

김미주 교수 어머, 그렇게 되는 건가요(웃음)

이혜영 맞아요.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

졌다'는 광고를 볼 때 마다 굉장히 공감해요(웃음).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 준 곳이 서사대고, 교수님이시거든요.

정은영 교수님은 교수님을 떠나서도 인생선배로서 롤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세요. 제가 해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육아까지 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멋지게 걸어 오셨잖아요.

박효원 맞아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결혼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을 거야'하고 자극을 받게 되요.

김미주 교수 제자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정은영 그래서 10, 20년 후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셔주셨으면 하는 바람, 아니 욕심이 있어요. 바짓가랑이 붙잡으면 안 되겠지만... (웃음)

이혜영 저도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모교를 찾아왔을 때, 교수님이 늘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민이 있을 때 찾아오면 언제든지 교수님이 반겨주셨으면 하는 거죠. 너무 제 욕심이지요?

김미주 교수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오늘 모인 세 사람에는 특히 기대가 커요. 실력도 열정도 큰 친구들이니까. 퇴직을 하면 남는 건 제자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인생도 성공하는 거죠.

일동 청춘어람

김미주 교수 서사대 보건행정학과 출신들을 믿어요. (웃음) ▲



행복한 승마체험 나들이

말발굽 소리와 함께한 4인방의 특별한 하루

사극 속 주인공이 말을 타고 드넓은 초원 위를 거침없이 내달린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 모습에 누구나 ‘나도 말을 타보고 싶다’는 동경의 마음을 한 번쯤을 품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승마는 아직은 접근성이 낮아 체험해 보기 쉽지 않은 스포츠이다. 이번 호 행복문화체험에서는 4명의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학우들이 승마에 도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긴장 백배 승마체험과 시원한 대부도 바닷가 산책이 함께 한 그들의 특별했던 하루였다. 글 | 편집부

승마를 통해 깨닫는 소통의 진리

이번 호 행복문화체험의 주인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4인방. 승마체험을 위해 서울에서 안산까지 먼 길을 달려 온 이해련(4학년), 최경은(4학년), 손승재(3학년), 정영철(1학년) 학우가 그 주인공이다. 주말 낮 시간에 서울에서 대부도까지, 대부도에서도 한참을 더 달려 승마클럽까지 오는 긴 여정은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학우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냥 말 타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완전 속았네!” 촬영 사실을 감쪽같이 속인 채 학우들을 데려 온 최경은 학우에 대한 다른 학우들의 투정어린 원성도 자자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승마장에 들어서 위풍당당하고 우아한 자태의 말들을 보자 어느 새 교통체증에 의한 피로는 설렘으로, 원성은 긴장감으로 치환되었다.

승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겁을 먹은 것은 막내인 이해련 학우. 그와 반대로 가장 평온한 것은 큰형인 손승재 학우다. 각자의 상반되는 표정 속에 강사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레 말에 오른다. 이어서 고삐를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 학우들. TV에서 볼 때는 신나게 달리는 일도 쉽게만 보였건만, 막상 말에 오르니 몸에 힘이 들어가서 걷는 일조차 쉽지가 않다.

“기승자가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말도 편안해 하고, 기승자가 경직되어 있으면 말도 긴장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말을 믿으세요.” 잔뜩 긴장한 학우들에게 강사가 조언한다. 강사가 말한 이 소통 방법은, 비단 승마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긴장과 경직으로 대하면 상대방 역시 경직되는 법이고, 편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그 관계 역시 그러한 형태로 발전하기 마련 아니던가.

말과의 첫 만남에서는 잔뜩 긴장한 4인방이지만, 그들의 첫 인연은 긴장보다는 친밀감과 유대감으로 시작되었다. 대개의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해타산과 경계심은, 학우라는 이름으로 만난 이들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솔직히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거리낌 없고 편한 관계를 만든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은 그러한 경계심을 없애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 가족처럼 편안한 사이예요. 학과모임이 아니더라도 번개로 만나서 친목모임도 가지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시작한 공부지만 그를 통해서 만난 인연의 소중함이 참 큰 것 같아요.”

‘서사대’라는 끈으로 이어진 단단한 인연

편보(천천히 걷기)에 이어 속보(빨리 걷기)까지 도전한 후, 승마 체험이 모두 끝났다. 겁이 많아 체험 내내 비지땀을 흘린 이혜련 학우는 말에서 내려오고서야 밝게 웃는다. 한편 별 기대 없이 오를 나들이에 동행했다는 손승재 학우는 오히려 승마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승마에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막상 타보니 재밌네요. 매력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되었는데 말과 교감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자전거 라이딩이나 보드를 즐기는데, 승마는 동물과 교감하면서 하는 운동이라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평소 스포츠와 동물을 좋아하는 정영철 학우도 즐거웠던 승마체험의 소감을 전한다.



승마 후에는 승마클럽 안 산책길을 걸으며 잠시 여유로움에 빠져 본다. 녹음이 우거진 산책길과 푸르른 대부도 바다... 시원한 자연 속에서 승마로 인한 긴장과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어느새 부드럽게 풀리는 듯하다. 각자의 직업적 성장과 꿈을 안고 입학한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은 학년도,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지만 그러한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4인방은 입을 모은다.

“회사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일 위주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난 관계는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학업 뿐 아니라 일상에 대한 고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 관계도 더욱 단단해지죠.”

최경은 학우의 말처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업의 장이기도 하지만 친구 같고 가족 같은 인연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끈’이기도 하다.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우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체계적 시스템 역시 한몫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에서 인연을 맺었지만 현재 4학년인 최경은 학우와 이혜련 학우는 내년이면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인연의 끈은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든든하게 이어질 것이다. ▲



왼쪽부터 최경은(4학년), 정영철(1학년), 이혜련(4학년), 손승재(3학년) 학우

장소제공_ 베르미델 승마클럽

아주 특별한 동행

SCU에서의 시간은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복지시설경영학과 졸업생 김익진 군은 ‘복지 욕심’ 가득한 청년이다. 한 번의 봉사활동에서도 가슴에 뜨거운 것을 길어내고, 꿈은 마음 깊이 담고 시야는 멀리에 둘 줄 안다. 복지 관련 책 신청과 함께 자신의 사연을 전해 온 익진 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다. 글 | 편집부



지난 6월 1일 토요일, 김익진 군(졸업생)의 하루는 유달리 바쁘게 시작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바로 ‘행복한 동행’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약속 장소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늘편한집’이다. 그곳에 가면 또박또박 말로 표현은 못해도 고마움과 반가움을 온몸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모습을 되짚으며 익진 군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분명 예전에 방문했던 곳인데도 몇 달 동안 동행하지 않았더니 처음인 것만 같고, 발걸음도 무거웠다고 한다.

“전공과목이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는 방법을 배웠지만 뇌성마비를 가진 내게는 힘든 점이 있어요.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최근에는 매번 준비 도중에 방문을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 복지시설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군에게 봉사란 그런 것이었다. 늘 곁에 있으면서도 다다르기엔 멀고, 익숙하지만 또 매번 벽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1시간 동안 ‘복지관에 가면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지...?’ 등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다른 학우님들과 인사를 하니 까 조금씩 내가 할 일이 눈에 보였어요. 청소, 쓰레기 버리기, 식사 보조...,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학우 한 분은 저더러 양동이로 물을 담아 달라고 하셨고 다른 학우님들의 일손도 바빠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익진 군과 함께한 학우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봉사동아리 ‘행복한동행’ 학생들이다. 늘 밝고 긍정적인 익진 군, 하지만 때론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 하는 익진 군을 챙기고 독려하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강릉에서 자란 익진 군은 고등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접하게 됐다. 대학교에서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복지에 대한 관심은 깊지 않았다. 심지어 교수님들마저 간접적으로 ‘너는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돌려서 얘기할 정도였다. 하지만 웬걸, 익진 군이 느끼는 벽의 높이만큼 관심도 커졌고 도전의식도 생겼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간절함과 확신을 점차 느끼게 되었다.

강릉 뇌성마비협회의 비상근 회원으로 1년을 근무했고 서울로 올라와 구로구의 자립생활센터에서 간사 경험도 쌓았다.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복지시설경영학과로 편입해 복지에 대해 더



오른쪽부터 학과 회장 송순옥, 김익진 학우, 총무국장 김은경

욱 체계적으로 배우고 접하게 되었다. ‘행복한동행’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복지 동아리 ‘북경아사랑해!’에서의 활동에서부터 이곳에서의 쌓은 배움과 인연, 그 모든 게 익진 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쁨만 하다.

“지난 졸업식 때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복지시설경영학과 동기들은 물론이고 여기서 만난 분들은 모두들 참 따뜻해요. ‘나도 복지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게 주셨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송순옥 복지시설경영학과 회장의 말에 따르면, 익진 군은 평소 부모님 뻔 되는 동기들에게도 ‘형’, ‘누나’라고 부르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드는 장본인이란다. 오프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늘 적극적인 태도로 공부하는 익진이를 누구나 좋아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벽이 높아요. 장애인이 복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당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도전할 겁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끼리 뜻을 모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로 나가는 첫발을 내딛은 익진 군, 최근 저작권협회와 재택근무 형태로 업무 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관심을 멈추기엔 가슴속이 너무 뜨겁다. 더 정진하여 공부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복기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아름다운 청년 익진 군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슨 일을 낼 것만 같다. ▲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

김수지 보건행정학과 석좌교수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가장 큰 선물로 마음 속 깊은 곳에 간직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셨던 박재형 교수님입니다. 얼마 전, 박 교수님 사모님의 소천 소식을 접한 후 부부가 보여줬던 서로 간의 진실한 신뢰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분들과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동문이라는 점에 감사하며 사모님이 계시는 먼 곳까지 이 편지가 닿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젊은이들과 두분의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글 | 김수지 보건행정학과 석좌교수

사랑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묵묵히, 성실하게 섬기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학교를 떠나 이곳 아프리카 말라위에 온 지도 벌써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은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있곤 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기도시간에 그리고 저의 생각 속에 자주 떠올리곤 하지요. 부족한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제겐 큰 영광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셨던 박재형 교수(전 서울대 의대 교수)님의 사모님 소천 소식을 접했습니다. 15년 동안,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 지낸 부인을 한결 같이 사랑하며 돌보셨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병상의 부인을 찾아 밤사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양쪽 볼을 두 손으로 정겹게 쓰다듬어 드린 후 “자, 기지개 한번 킵시다!”며 사모님의 양쪽 팔을 머리위로 쭉! 쭉! 쭉! 그리고는 양 다리와 관절, 발목 등을 차례대로 주무르는 마사지와 폼다 구부렸다는 반복하는 수동적인 운동을 시키면서 그날 하루의 일정을 나누고는 “그럼 오늘도 잘 지내요!”라는 정다운 인사를 하며 출근길에 나서던 남편 박재형 교수.

저녁 때 돌아오면 제일 먼저 부인이 누워계신 병실을 찾아 낮 동안 찾아 온 방문록을 훑어보면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일일이 설명해 주기도 하고, 아침과 똑같이 마스한 손길로 항상 자신의 양손을 비벼서 마사지와 운동을 시킬 때 박 교수님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생활의 보고를 정답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들려주는 그렇게도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 의료팀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을 뿐 아니라 항상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부부간의 사랑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며 배우는 학습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로, 의료선교와 각종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엄마의 자리까지 충실히 감당하신 가장으로, 엄마 뒤를 이어 음대를 졸업한 따님과 아빠 뒤를 이어 의대를 졸업한 아드님을 사회의 일꾼으로 잘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참석하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민 자녀들을 통해 얻은 철 따라 찍은 손주들의 사진을 침상 곁에 붙여두고서는 그들의 커가는 모습을 낱낱이 나누었던 자상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잘 하겠다는 결혼서약을 했으면서도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랑한다던 배우자를 팽개쳐 버리는 예들을 흔히 보는 지금 우리네의 세태에서, 박재형 교수 같은 분이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사실, 그리고 최신의 학문을 접하게 해준 기회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대학을 위해 기도하는 동문, 바로 그러한 분과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배움과 삶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자랑스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15년간의 긴 세월을 묵묵히 어찌할 수 없어 누어있을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한 번도 안아줄 수 없어 안타깝지만 너희들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 하루, 한 주, 한 달, 아니 365일이 무려 15번이나 지나 간 긴 세월 동안을 애절한 호소와 간청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도와 생각을 되풀이하셨을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잘 견디셨습니다.

남편의 자상하고 정성 어린 사랑의 돌봄과 자녀 손들의 효성 깊은 삶의 나눔, 그리고 시댁식구들을 비롯한 수많은 친지와 교우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세요”를 수없이 되뇌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딸아, 오랫동안 참으로 잘 참았구나. 그리고 수고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지내자구나”라는 주님의 따뜻한 초청을 받으셨을 사모님, 이 땅에서 사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환송예배는 뒤에 남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답게 산다는 것, 부부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준 아름다운 자리였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천국에서 뵈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함(감사해요, 사랑해요, 함께 해요)으로! ▲

재테크? 빚부터 갚아라... 빚테크 5계명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재테크에 몰입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바로 빚 관리다. 빚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재테크는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효과적인 '빚테크 5계명'을 소개한다. 글 | 김영훈 중앙일보 경제부문 기자

저금리 시대다. 1,000만원을 은행에 맡겨도 1년 후 이자가 30만원(연 3%)을 넘기기 쉽지 않다.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 투자를 하려 해도 주가가 영 시원치 않다. 이럴 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고수익을 쫓다보면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이다.

차라리 한 박자 쉬는 게 좋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다. 그동안의 재테크를 돌아보고, 과도한 빚을 줄이는 시기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몸이 안 좋을 때, 경기 출전을 미루고 몸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실 빚 관리의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이다.



1 빚내서 투자하지 않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빚테크의 첫 번째 원칙은 빚내서 투자하지 않기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연 3%대 담보 대출도 나왔다. 그러나 이자가 싸다고 빚을 내 투자하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연 3%대 빚을 내면 적어도 5%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남는 게 있는 법인데, 요즘 5% 수익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손에 남는 건 없고 빚만 늘어날 수 있다.

2 갚아타기

두 번째 빚테크 요령은 갚아타기다. 대출을 중간에 갚아타거나 만기보다 빨리 빚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갚아타기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갚아타기를 고려해 볼만하다. 예를 들어 3년 정도 전에 고정금리 대출을 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대출을 갚아타는 게 유리하다. 당시만 해도 대출 금리가 5% 이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 대출별로 조건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사에서 상담을 통해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주거래 은행 만들기

세 번째 빚테크 요령은 주거래 은행 만들기다. 싼 대출 상품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파는 것은 좋지만, 여러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출 상담을 너무 많이 받으면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등으로 금리를 비교해 본 후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위주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적립식 펀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면 신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을 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워낙 금리가 낮아 더 내려갈 가능성은 적고, 오를 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쓰고 갚을 생각이라면 변동금리가 나을 수 있다.

4 빚 총량 관리

네 번째는 빚 총량 관리다. 전문가들은 매월 내는 대출 상환액이 자기 소득의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다른 재테크 상품을 기웃거리는 것보다는 있는 빚을 갚는 게 우선이다. 연 20~30% 금리의 카드론이나 새마을금고·신협·보험 등 제2금융권 대출이 상환 1순위다. 주의할 점은 빚을 갚겠다고 장기 납입 상품을 깨는 것이다. 장기보험 상품을 해지하면 대출 이자를 좀 더 부담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5 채무 통합을 시도

마지막으로 빚이 이미 많아 부담이 크고 연체 위기에 빠져 있다면 채무 통합을 시도해 보자.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이나 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여러 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하나의 대출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또 연 20%대의 높은 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대출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소득이나 신용등급, 대출 규모 등 제한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바꿔드림론은 금융사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해 온 대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은 30%대 고금리 대출을 2금융권 수준의 20%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대출 금액 전체가 아닌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전환을 해주지만, 당장 빚 갚기가 벅찬 대출자에겐 큰 도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어도 소용없는 ‘피로’ 혹시 병은 아닐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과도한 업무, 잦은 음주나 흡연으로 현대의 직장인들은 자주 피곤과 피로, 무기력함을 호소하며 “피로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피로는 보통 활동 이후에 나타나는 비정상적 탈진이나 기운이 없어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상적인 일을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는 상태 등을 말한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속성 피로나 만성 피로를 의심할 수 있다. 글 | 김선희 의학전문기자 (www.hidoc.co.kr)

●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6가지

수면 부족, 영양

수면장애는 신체의 면역기능과 자율신경계에 문제를 일으켜 각종 질환은 물론 불안증,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된다. 야간뇨, 빈뇨, 수면무호흡증, 우울증, 신경과민, 스트레스, 카페인 과다 섭취, 불규칙한 수면 습관 등이 수면장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영양섭취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자주 거르고, 치과치료, 만성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경우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피로가 유발될 수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만성피로의 주요인으로 ‘영양불균형’을 꼽으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외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도 골고루 챙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빈혈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나 혈액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인 경우 인체 구석구석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서 피로가 유발될 수 있다. 위장관출혈, 철분영양부족 등인 경우 빈혈이 생길 수 있다. 빈혈은 주로 여성에게 많긴 하지만 중년 남성도 안전하지 않은 않다. 잦은 술, 담배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위장과 십이지장의 출혈로 인한 만

성출혈이 남성에게도 빈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성도 나이 들어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빈혈 발생률이 여성과 비슷해진다. 잦은 두통, 집중력 저하, 손톱이 부러지고 쉬 피로를 느끼는 경우 중년 남성들도 빈혈을 의심해볼 수 있다.

당뇨

혈중에 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만성 질환인 당뇨의 주요 증상으로는 목이 자주 마르고(갈증), 소변량이 늘고, 식욕이 증가하며 피로를 자주 호소하게 된다. 당뇨인 경우 일반인에 비해 피로가 두배 이상 발병하며 당뇨로 인한 신장병증, 신경병증 등의 각종 합병질환에 의해 피로도가 증가하게 된다.

만성 피로 증후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피로나 무기력감 등이 6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일 수 있으며, 간 기능 이상, 갑상선 이상, 알레르기, 수면장애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깊게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음과 피로를 유발한다.

미국 질병 통제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만성 피로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 여러 검사에서 질환이 발견되지 않을 때
- 피로 때문에 업무 능력과 학습 능력이 크게 떨어질 때
- 쉬어도 피로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으며, 이 4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날 때

갑상선 질환

갑상선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활동에 필요

한 에너지를 만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저하되거나 결핍되어 만성 피로나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간 손상

간 손상으로 간 기능이 약해질 때도 만성 피로가 나타난다. 간은 정맥(간문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분해하는데, 이에 이상이 생기면 피로물질 분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극심한 만성 피로감과 함께 간이나 가슴 부위가 묵직하고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되지 않으면, 간 질환에 따른 만성 피로를 의심할 수 있다.

● 피로예방에 필요한 ‘튼튼한 간’에 좋은 음식

결명자

눈에 좋은 것으로 더 유명한 결명자는 간에 쌓인 열을 없애고 간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 동의보감에서 결명자는 녹내장과 눈이 출혈되고 아프며 눈물이 날 때 효과적이며, 간의 기운을 증진시키며 두통과 코피를 다스린다고 기술하고 있다.

부추

동의보감에서 ‘간의 채소’라 불릴 만큼 간 기능 강화에 효과적이며 신체기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비타민 A, B1, B2, C 등과 무기질이 풍부해 ‘비타민의 보고’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곰의 쓸개, 웅담

웅담은 곰의 쓸개로 본초강목에서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며 가슴과 배의 위아래를 쿡쿡 찌르는 것같이 아픈 가슴앓이가 주 증상인 충심통을 치료하며, 황달을 치료하고 기미와 검은 반점을 없애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데 좋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람이 소변을 5일 동안 보지 못하면 독성물질인 요소가 온몸에 퍼져 사망

에 이른다. 하지만 곰이 소변을 보지 않고도 3개월간의 긴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소변을 재흡수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 만큼의 강력한 해독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웅담은 이런 해독능력을 갖고 있는 UDCA(우루소데옥시콜린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밀크시슬

밀크시슬의 추출물인 실리마린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수치를 정상화하여 간기능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또 지방간과 간의 독소를 제거하여 간기능 개선에 좋고 면역글로블린이 있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좋다.

헛개나무

본초강목에서는 헛개나무가 숙취와 주독(술 중독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붉은 점이나 빛)을 해소하고, 간 해독과 변비에 좋다고 기술하고 있다. 음주 전과 후에 헛개나무차를 마시면 숙취해소에 좋고 간에 쌓인 독을 해독해줘 간기능 개선 및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 만성 피로를 이기려면?

평소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이 만성 피로를 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6~7시간 정도로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며,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를 단순 피로쯤으로 넘긴다. 하지만 만성 피로가 계속될 경우 무기력함과 피로가 지속됨은 물론이고 위장장애, 수면장애, 두통, 근육통,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BOOK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직장인 모힘과 김경수의
소심한 인생 벗어나기



평범한 직장인으
로 살아가던 저자
가 마흔 즈음 소심
한 인생에서 벗어
나 대범하게 살아
보고 싶다는 다짐
으로 세계의 사막

과 오지를 다니며 경험 엮어 만든 책이다. 이
후 10년 동안 모로코 사하라, 고비, 나미비아,
칠레 아타카마, 이집트 사하라, 인디아 사막,
호주아우백 레이스 등 총 2,336킬로미터의
사막과 오지레이스를 완주했다. 멀리서 보
면 단조롭지만 안으로 뛰어들면 생사를 걸
어야 하는 변화무쌍하고 끝없는 사막 앞에
서 저자는 자신이 하나의 점과 다름없는 자
신을 발견한다.

• 김경수 지음 | 명진출판사 | 정가 15,000원

나는 골목의
CEO다

전통시장의
부자상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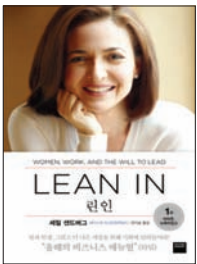
시장에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신발
가게, 식육점, 생선
가게 등을 운영하
는 평범한 상인이
지만, 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다! 양복지를 팔면서도 한복지와의 퓨전
제품을 개발해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외국
인 고객이 늘어나자 그들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 외국의 현지 시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젓갈과 토굴을 관광상품으로 연계하는 등 평
범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특별한 성공지혜로
위기와 정면으로 승부를 건 성공한 강소상인
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이갑수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정가 13,000원

린인

일과 인생,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달려들어라!



구글과 페이스북
의 폭발적 성장
을 이루어낸 실리
콘밸리의 아이콘
세릴 샌드버그가
TED강연에서 못
다 풀어낸 '여성과

일,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자신의 경
험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여성들이 경력
을 추구할 때 맞닥뜨리는 장애물과 그 원인을
자신의 경험을 물론, 사회학적 연구 및 세계
조사 통계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들어
다룬다. 저자는 여성들이 다양한 상황에 맞닥
뜨렸을 때 필요한 현실적인 해답은 무엇인지,
일과 사생활에서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무엇인지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 세릴 샌드버그 지음 | 와이즈베리 | 정가 15,000원

ART



사진제공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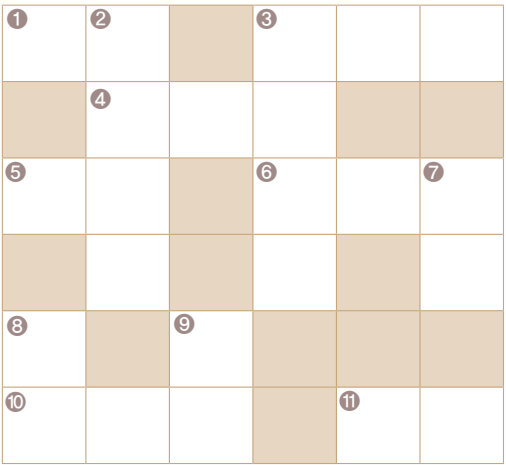
시크릿뮤지엄

디지털 영화 오디세이-시크릿뮤지엄이 9월 22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다. 시크릿
뮤지엄은 2010년 프랑스 파이의 5대 박물관인 프티팔레에서 개최하여 대중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
던 디지털 영화전시 레벨라시옹>의 한국투어다. 누구나 그림에 빠져서 명작들 속을 산책하고, 명작 속
숨겨진 곳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크릿뮤지엄은 모네의 일몰에서 빛을
직접 관찰하고 렘브란트의 명암속으로 들어가보고, 들라크루아의 화려한 색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
져들며, 고흐의 열정적인 붓놀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예술체험을 선사한다. 시크릿뮤지
엄은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의 세계에 다가가고자 하는 디지털 신전이다.

- 전시명 : 디지털 영화 오디세이-시크릿뮤지엄
- 기 간 : 2013년 6월 12일~9월 22일
-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PUZZLE

SCU 팡팡



※ 정답자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1만 원권)을 제공합니다.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홈-대학생활-이벤트)로 들어가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 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
- ③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 ④ 몸 안에 들어간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애는 약
- ⑤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
- ⑥ 하늘의 뜻을 앎. 신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⑩ 신일학원 설립자인故이봉수 선생님의 아호를 딴 본교 한옥체험관.

세로

- ②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로운 바가 없음.
- ③ 스승과 제자의 관계.
- ⑦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 잡념과 가식과 헛된 욕심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
- ⑧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
- ⑨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을 위해 조직하는 단체.
- ⑪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CLASSIC

조수미 파크콘서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
노 조수미가 2013년 9월 14일(
토)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야
외무대에서 파크콘서트를 가
진다. 2010년 BBC심포니오케
스트라, 2011년 소프라노 조수
미 콘서트, 2012년 유키 구라
모토, 스티브 바라캇, 이루마의
피아노파라디소 콘서트로 관

객들이 꿈꾸던 무대를 만들어 온 파크콘서트가 2013년 또 한 번
꿈 같은 밤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2013년 파크콘서트
는 2011년 조기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소프라노 조수미 파크콘서
트가 새롭게 찾아온다.

- 일시 : 2013.9.14~9.14
- 장소 :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MUSICAL

뮤지컬 레미제라블



2008년에 처음 제작된 레미제
라블은 2010년까지 전국 관람객
24만명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2012년부터 기획제작 되어온 이
번 레미제라블은 노틀담의 꼽추
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송현
지 연출과 서정적인 음악으로 잘
알려진 황태승 작곡가가 합세하

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번 레미제라블에서는 클래
식한 음악과 테크놀러지적인 음악을 절묘하게 섞으면서 자칫 무겁
게만 흐를 수 있는 분위기에 포인트를 주고 있다 오페라 연기로 다
저진바리톤 권한준을 비롯하여 성악 전공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극의 기품을 더하고 있어 음악에 대한 퀄리티를 한층 높이고 있다.

- 일시 : 2013.~8.25일 까지
- 장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부동산학과 사회공헌프로그램 강의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일반인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자 마련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3일(토) 부동산채권유통화과정 4주차 강의를 진행되었다. 채권유통화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일반인이 수강하였으며, 매주 약 250명이 참여하였고, 지방에서도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생중계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대학 최초 KT 단독 사용 협약 KT「Olleh Smart Working Center」

olleh smart working

지역적인 요소로 인하여 본교에서 운영 중인 8개 지역캠퍼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사이버대학 최초로 KT와 협약 체결을 통해 'olleh smart working center'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다른 사이버대학들이 지역캠퍼스를 운영하지 않는 시점에 우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큰 성과다.

1. 센터 명 : olleh smart working center
2. 시설물 : 개인공간, 회의실(4~6인), 컴퓨터, 빔프로젝트, OA기기 등
3. 이용목적 : 스터디, 멘토링, 학과모임, 지역모임, 특강(중간·기말고사 기간과

개인업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이용목적 이외 사용 적발 시

추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4. 신청방법 : 이용일 최소 3일전 학생지원팀(02-944-5234, 5236, 5237, 5238)에 신청

5. 이용대상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교직원(일반인, 제적생 제외)

6. 시설 이용문의 : KT 콜센터 1577-2501

NPL(부실채권)과 비동화채권을 활용한 무료 부동산 투자기법 교육과정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NPL(부실채권)과 비동화채권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기법' 교육과정을 무료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학도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부동산학과 재학생 및 동문에게 실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동산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되었다.

교육은 3월 23일(토요일)부터 4월 13일(토요일)까지 총 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 14:00부터 2시간 30분씩 본교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부동산 투자 교육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박태형 교수가 담당한다.

서영수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지난 4월 22일 본교 서영수 평생교육원장(금융보험학과 교수)은 '우정사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새 정부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3 DT브랜드파워대상

DT브랜드파워대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특히 국내 대학 최초로 IMS(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사이버대로는 이례적으로 '내용전달 중심'에서 '활동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교육 콘텐츠 모듈화 개발에 힘써왔다.

그 결과 국내 대학 최초로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인 'SCU Learning WAVE(이하WAVE)'를 개발해, 사이버대 최초로 이러닝 국제대회 'IMS Learning Impact Award 2011'에서 상을 수상했다.

중앙경찰학교 방문



지난 5월 31일 강인 총장과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협력기관인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해 수업에 참여하고, 경찰의 민생 치안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날 조기형 중앙경찰학교장은 교육인프라 및 사이

버교육에 대해 각 학교의 교류협력이 증대될 것을 강조하였다.

부동산대학 세계개편안 특강



부동산학과가 12일 오후 2시 서울 강북구 서울사이버대학교 A동 4층 차이코프스키홀에서 4·1부동산종합대책 세계개편안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특강에서는 전성규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부동산대학 세계개편안에 대한 6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또한 부동산학과는 오는 12일 오후 2~5시 대학 내 차이코프스키홀에서 4·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7일 대학 측에 따르면, 부동산학과는 지난 4·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각종 세계개편안에 대해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한시면제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단기보유주택 세율 완화 △준공공임대 세금 혜택 △집주인에 대한 세금혜택 등 6가지 핵심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비타민C 전도사 특강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월 30일 예비 입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타민C를 이용한 현대인의 건강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왕재 교수를 모시고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이왕재 교수는 비타민 C의 중요성과 바쁜 현대생활에서의 건강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전문계高·전문大 출신 장학금 혜택



철저한 학생 중심의 서비스로 재학생 만족도가 높고, 온·오프라인에서 최적화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서울사이버대의 2013 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 모집은 6개 학부 16개 학과에서 실시된다. 이번 모집전형의 큰 특징은 정원 내 일반전형 장학범위의 확대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시 전형료 전액 면제이다.

학업계획서 60%·적성검사 40% 반영기로



이완형 입학처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인간복지학부, 심리·상담학부, 사회과학학부, 경상학부, IT·디자인학부, 문화예술학부 총 6개 학부에서 3,929 명을 모집했으며, 입학지원서는 입학홈페이지(apply.iscu.ac.kr)를 통해 신청 받았다. 학업계획서(논술) 60%, 학업준비도검사(적성 검사) 40%를 반영하여 선발했으며, 학업준비도검사는 학습방식 부문과 학업잠재력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토요특집 SBS 모닝와이드 TV방송



지난 6월 22일(토)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TV 방송에 꿈을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소개되었다.

일반 대학보다 저렴한 학비와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신개념 교육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컴퓨터는 물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가상의 대학교라고해서 일반 대학교와 다르다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교 최초이자 최대의 독립된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선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자유로운 모임과 세미나가 가능하다.

2013년 하반기 입시설명회 및 캠퍼스투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6월 29일 하반기 신입생 지원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입시설명회 및 캠퍼스투어가 있었다. 입시설명회 외에도 캠퍼스투어와 특강, 교수와의 맞춤 진학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사이버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교수동정



권금주 교수, 노후 척도 개발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학과 권금주 교수는, 2013년 4월 한국자료분석학회 학술지에 논문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 연구」를 게재하였다.



김동환 교수, 오피스빌딩 서비스품질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2013년 3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술지에 논문 「오피스빌딩 서비스품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B2B 서비스품질과 산업재를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김미주 교수, 학교보건 논문 게재 및 자문위원 위촉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는, 2013년 6월 대한보건연구 학술지에 논문 「우리나라 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시 학교현장의 애로점과 개선과제」를 게재하였으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건강증진모델학교'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돕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



김영민 교수, 물류 RFID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2013년 3월 한국유통경영학회 학술지에 논문 「RFID 도입 성과에 대한 물류기업 종사자의 인식 비교 연구」를 게재하였다.



김요완 교수, 상담관련 저서 출간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는, 2013년 3월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 2: 상담철학과 윤리』(학지사)와 5월 『현장중심의 성상담과 성교육』(교문사)을 출간하였다.



김윤나 교수, 사회복지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는, 2013년 3월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학술지에 논문 「가출팜 청소년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김현아 교수, 상담심리 관련 논문 게재 및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2013년 3월 한국콘텐츠학회 학술지에 논문 「다문화상담자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다문화 현장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를, 2013년 3월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 2: 상담철학과 윤리』(학지사),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 9: 성격의 이해와 상담』(학지사)을 출간하였다.



김현진 교수,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 7: 학습상담』 출간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는, 2013년 3월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 7: 학습상담』(학지사)을 출간하였다.



박종선 교수, 이러닝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박종선 교수는, 2013년 4월 이러닝학회 학술지에 논문 「사이버대학 이러닝 수업 모니터링 요인 탐색」을 게재하였으며, 2013년 7월 교육공학연구 학술지에 논문 「사이버대학 이러닝 콘텐츠 수정 유형 및 활용 년수에 따른 교육 효과 비교」를 게재하였다.



박태정 교수, 사회적기업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박태정 교수는, 2013년 5월, SSCI 저널인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에 논문 “Emerging issues regarding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를 게재하였다.



서영수 교수, 『투자리스크관리 길잡이』 출간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는, 2013년 5월 『투자리스크관리 길잡이』(이담박스)를 출간하였다.



심선경 교수, 온라인수업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학과 심선경 교수는, 2013년 3월 한국콘텐츠학회 학술지에 논문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도구와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간의 관계 연구」를 게재하였다.



이성태 교수, 디자인 관련 작품 전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2013년 5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주최한 ‘International Design Invitational Exhibition’과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가 주최한 ‘2013 Spring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Exhibition’에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우경 교수, 심리학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2013년 5월 한국임상심리학회 학술지에 논문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애착 불안정의 매개 효과」를, SSCI저널 Asia-Pacific Psychiatry 6월호에 논문 “Effectiveness of computerized cognitive rehabilitation training on symptomatological, neuropsychological and work func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와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학술지에 논문 「애착 불안정과 우울의 관계에서 감정 표현 불능증 특성의 매개 효과: 일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이자영 교수, 다문화상담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는, 2013년 3월 한국콘텐츠학회 학술지에 논문 「다문화상담자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다문화 현장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이향아 교수, 스마트러닝 관련 논문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2013년 3월 한국과학예술평화학회 학술지에 논문 「교육용 앱을 통한 스마트 러닝의 확장성 연구」를 게재하였다.



임세희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는, 2013년 5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논문 「공공임대주택거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2013년 9월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될 예정이다.



전광호 교수, 경영 관련 논문 발표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는, 2013년 6월 (사)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영원사업의 개인특성이 적응판매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질의 조절효과」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현주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정현주 교수는, 2013년 4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술지에 논문 「학교폭력 경험과 부모양육 행동간의 종단적 관계 및 잠재유형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차명희 교수, 미래형 게임 관련 논문 공동게재 및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2013년 6월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학술지에 논문 「게임 환경의 미래형 하우징 디자인 연구」를 게재하였으며, 미국 뉴욕의 School of Visual Arts에서 열리는 ‘New York School of Visual Art Special Invited International Design Exhibition, Conference 2013’에 작품을 전시하였다.



한수미 교수, 온라인교육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2013년 4월 한국교육공학회 학술지에 논문 “The Effectiveness of Streaming Video with Web Based Text in Online Course”를 게재하였다.



홍선관 교수, 미래형 게임 관련 논문 공동게재

부동산학과 홍선관 교수는, 2013년 6월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학술지에 논문 「게임 환경의 미래형 하우징 디자인 연구」를 게재하였다.